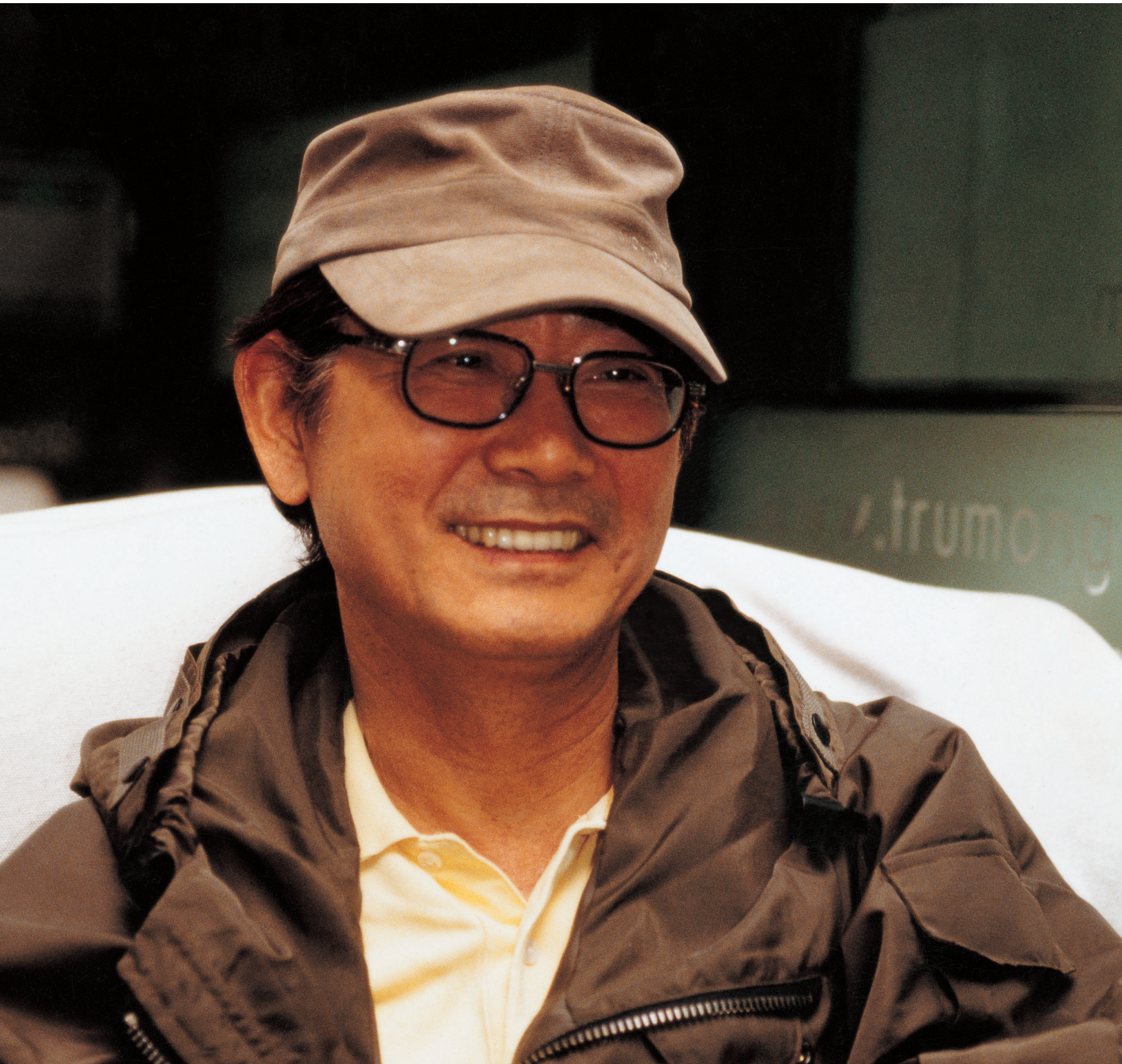


이세기의 예술인 탐구 28

# 끝과 망치로 다듬어진 전무송(全茂松)의 연기세계

글\_ 이세기 소설가·전 대한매일 논설위원



대상을 꿰뚫는 전무송의 연기는 끌과 망치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무르익은 연기세계를 창조해 내고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려한 명성과 인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반성의 끝없는 인내력의 되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배우 전무송(全茂松)을 보면 그는 연극배우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언동은 진지하고 따듯하며 부드럽고 여유롭다. 꾸미지 않고 긴장하지도 않는다. 티를 내는 스타 의식이 아니라 타의 귀감이 되는 진정한 배우의 위상을 지키고 자 한다. 대상을 꿰뚫는 그의 연기는 『시경』에 이른 대로 “자르는 것처럼(如切) 가는 것처럼(如磋) 쪼는 것처럼(如琢) 뿔는 것처럼(如磨)” 끌과 망치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무르익은 연기세계를 창조해 내고 있다. 전무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려한 명성과 인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반성의 끝없는 인내력의 되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개성이 강한 연기보다 사랑에 대하여 진실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정석의 역할을 맡고 있다. 1960년대부터 연극무대의 주역으로 각광받아 우울한 햄릿과 세일즈맨 윌리 로먼의 연기로 그는 가혹한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파멸되고 함몰되는 패배주의자, 음습한 도시 뒷골목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이방인의 모습 속에 노스텔지어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특히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치고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가장의 참담한 말로를 “그 옛날 나의 아버지였고 어느 날 내 모습”처럼 받아들여 그가 연기한 윌리 로먼을 본 관객들은 연극이 끝나고 나서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톤이 낮고 둥근 발성과 고독하고 정밀한 연기는 마치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다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베케트의 블라디미르, 헤롤드 핀터의 스탠리, 테네시 윌리엄스의 브리크를 분하지만 그는 웬지 햄릿형 배우를 면치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배우의 생명인 혁신적인 연기 변신에서 그때마다 벽에 부딪혀 스스로 자질 부족임을 자책했고 햄릿과 윌리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썼다.

그는 작품을 대할 때마다 극중 인물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쓸 때의 발상과 감성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자신의 것으로 육화함으로써 연극의 순간성, 일회성이 무대언어를 통해 영원성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대본을 받아들면 목욕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술도 끊고 잠을 자거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어두운 방안에 죽치고 앉아 하나의 상이 떠오를 때까지 그 역을 응시하여 하나의 인물을 창조해 낸다. 세일즈맨 윌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윌리의 직업과 그를 둘러싼 가족, 그리고 가장 소시민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실적인 생활 묘사 외에도 연극에 등장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 주변의 인물과의 대응을 충분히 소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사 암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의 연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하멜태자나 윌리나 블라디미르가 아니라 자기 극복을 위한 수련과 연구, 작품 분석과 치밀한 탐색 끝에 얻어진 결과다.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의 연기를 보고 “끌과 망치로 다듬어진 대리석”이라고 평한다. 그것은 칭찬이지만 너무 정교하여 자연스러운 리듬이 배여 있지 않다는 의미도 된다. 결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기 위해 블라디미르가 기다림을 멈추지 않듯

이 그 시절 그의 연기세계의 앞날은 농무 속의 안개꽃처럼 불투명하기만 했다.

### 유치진이 세운 연극아카데미 1기생으로 입학

전무송은 대사 한마디짜리 역할로 첫 무대에 올랐다. 지금의 서울예술대학인 드라마센터 연극아카데미 재학생 발표에서 가진 유치진 작·오사량 연출의 <소>가 그것이다.

“우리 집 타작은 별모레니까 그때 들러 술이나 한잔하세요.”

무대를 가로질러 이 한마디를 하고 들어오는데 연출자 오사량이 “너 때문에 연극을 다 망쳐버렸다”면서 다짜고짜 뺨을 올려붙였다. 그것은 술 취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강패의 건들거림이라고 했다. “너 같은 녀석이 연극은 무슨 연극이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그만두라.”

어둠 속에 잠긴 원형무대를 응시하면서 그는 인생의 진로를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로 허우적거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인천행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그는 허공 중에 대고 “오사량, 두고 보자. 나는 반드시 훌륭한 배우가 되고 말겠다”고 소리쳤다. 두 뺨 위로 눈물과 진눈깨비가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고 그날을 회상하곤 한다.

전무송은 1941년 9월, 인천시 내동 가난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전경식(全敬植)과 원복희(元福姬)의 3남 4녀 중 장남. 인천 축현초등학교 졸업 후 명문 인천중학에 입학,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공업에 젊은이들이 헌신적으로 몸을 바쳐야 한다”는 교장의 연설을 듣고 1957년 인천공고 기계과에 입학, 친구들은 그의 반듯한 용모를 앞세워 ‘영화배우’가 되라고 부추겼고 그는 신포동 극장에 드나들며 <역마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발탄> 등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보거나 서울 충무로 배우들이 드나드는 태양다방에 죽치고 앉아 감독의 눈에 띄어 일약 스타로 발탁되기를 꿈꾸기도 했다.

한양대 공대에 합격했으나 고기잡이배를 타던 집안 형편으로는 대학 진학이 어려워 인천 기계공작장 예비사원으로 들어갔다. 밤새도록 바이스로 쇠를 깎으면서 수북히 쌓인 쇳가루가 하루아침에 녹스는 것을 보고 “나의 인생이 쇳가루처럼 녹슬 것이 두려워져서” 7일 만에 그만두고 이번에는 신문 배달에 나섰다. 그때 서울신문 인천 지국장이 준 연극표를 가지고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한 <햄릿>을 보고 김동원의 연기에 반해 동량(東朗) 유치진이 세운 드라마센터 연극아카데미 1기생으로 입학했다.

드라마센터 연극아카데미에서 그는 정교한 배우수업

◀ 인천 영화유치원 시절, 전국 유치원 연극대회 참가(뒷줄 왼쪽서 다섯번째가 전무송)

▶ 제주 한라산 등반, 영원한 반려자이며 매니저이기도 한 부인 이기순과 함께





◀ 1965년 드라마센터에서 이원경 연출 <나운규> 공연. 눈물의 여왕 전옥(가운데), 희규 역의 전무송(왼쪽)  
▶ 1971년 극단 자유극장의 김정옥 연출 <그물 안 여인들> 공연 기념촬영(왼쪽부터 김정옥, 하나 건너 추송웅, 하나 건너 정미자, 전무송, 김금지 등)

을 받았다. 학교에서 가르친 과목 중에는 무대동작, 펜싱, 무용이 있었다. 학습기간 동안 무대에서의 균형 있는 걸음걸이와 움직임, 소품과 대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배웠고 자신만의 특유한 발성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동량은 연극연습실에도 도를 닦는 자세를 지켜야 한다면서 '도장(道場)'이라고 써붙였다. "잡담을 해도 연극 얘기를 하라"고 했다. 유치진, 오사랑, 이해랑, 이진순, 이원경 등 우리나라 신구 1세대들인 기라성 같은 연극대가들의 연기지도를 받았으나 기본 단계인 대사 외우기와 작품몰입 과정이 어눌하고 뒤늦다는 것이 교수들의 지적이었다.

1964년 졸업 후 신구, 이호재, 민지환 등과 함께 '동량 레퍼토리 극단' 창단 멤버가 되었고 드라마센터 내 골방에 기숙하면서 자신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연극수업을 쌓았다. 이때는 굶기를 밥먹듯 했다. 그해 가을 극단 창단 기념공연 유치진 연출의 <춘향전>에서 이몽룡으로 캐스팅되어 '가능성이 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졸업 작품이자 데뷔 작품인 이 작품이 잊을 수 없는 것은 불과 몇 달 전 연극을 그만두려면서 뺄까지 때렸던 오사랑이 유치진에게 전무송을 추천하면서 "괜찮은 배우가 하나 있다"고 귀띔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큰 용기를 얻은 전무송은 유치진 작·연출 <마의태자>에서

남미리, 김보애와 열연, <마의태자>는 본래 김진규가 역할을 맡았으나 영화 출연으로 대신 주역을 맡게 되었고 군에 입대할 때까지 2년간 김진규의 집에 머물면서 배우 정신에 대해 밀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 이후 <나운규> <햄릿>으로서 "전무송이 등장한 무대는 살아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연기자" 등의 평과 그 무렵 <햄릿> 공연을 본 극작가 차범석은 "드라마센터 무대는 괜찮은 배우를 품고 있다. 연극계에 새로운 별이 탄생될 것 같다"고 예고했다. 앞길에 청신호가 비치는 듯했으나 인생역전은 예측 불허였다.

### 자기반성의 끝없는 인내력으로 다듬어진 연기자

그가 올바른 연기자가 되기까지는 참으로 숭한 난관을 거치고 있다.

극단 창단 6년 만인 1970년 유치진 2세이며 미국 트리니티대·예일대에서 교육을 받은 유덕형(柳德馨)이 새로운 연출자로 부임하게 된다는 뉴스였다. 동량의 간판 배우로서 당대 대연출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전무송 으로서는 자만심과 야심, 오만이 넘쳐 있었다. 그리고 연극 본고장인 뉴욕에서 본격적인 연극 체험을 했다는 이 촉망받는 신성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기도 했다.

유덕형의 귀국기념 무대는 헤롤드 핀터의 <생일파티>



◀ 1979년 국립극단 공연 <천사여 고향을 돌아보라> 주역  
▶ 1994년 씨실극장 장윤환 작 <색시공> 주역(왼쪽)



였다. 주인공인 스탠리에 캐스팅될 것은 뻔했다. 한데 대본을 읽는 과정에서 연출자는 “느낌이 없다” “사극조(史劇調)”라고 꼬집더니 동기생인 신구의 ‘언더스터디’를 하라고 했다. ‘언더스터디’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전무송은 주인공인 스탠리의 상대역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날 임시 ‘대역’에 불과함을 알고 화가 날 대로 나버렸다. 동량의 간판배우에게 대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연출자가 배역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연기에 대한 접근방법이 너무 경직되어 작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연극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역에만 깊이 빠져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든다” “함께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무대의 조화를 깬다” “연출자의 주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전무송은 다감하고 부드러운 반면 당시엔 술만 마시면 그의 주사는 소위 ‘올분’을 터뜨리는 식이었다. 개막 전날 밤 그는 억눌렀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날뛰었다. 술을 마신 채 큰 소리로 연출자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극장 안으로 달려가 “이리 나와 보라”고 소리쳤다. 술에 만취되어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다. 연출자를 찾아다니며 벽을 부수고 재떨이를 내던지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다음날 유치진 교장이 그를 불러 엄히 나무랐다. “연

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했다. “한 사람의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인간이 생각하고 겪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나타내라. 연극은 꾸미는 것이지만 연기는 가슴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 연기는 시원찮으면서 가슴만 뜨거워도 안 된다. 예술가는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제대로 작품을 파악하여 역할을 할수록 내 속에서 다른 것이 기어나오게 된다. 연극배우는 몸에서도 늘 연극 냄새가 나와야 한다.”

좋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양심이 때묻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순수한 연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선, 접촉, 언어 동작을 마음속으로 부터 키워나갔다.

이듬해 신구의 TV 출연으로 주인공 스탠리 역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으나 처음엔 ‘사극조’라고 못박아 사기를 죽이던 유덕형이 이번에는 “리처드 버튼을 흉내내지 말라”고 힐난했다. “넌 백날 해도 리처드 버튼은 따라가지 못한다. 네 속에 있는 네 것을 끌어내라. 연기생활 10년이면 제대로 무대에 설 수 있는데 왜 남의 것을 쫓고 배끼는 데 급급하는가.”

유덕형의 이 말 한마디에 잠재돼 있던 영감과 연기 본능이 깨어나고 눈앞을 가리웠던 두꺼운 커튼이 활짝 열렸다. 이리저리 곤두박질치면서 그는 이렇게 성장했다.

▲ 1999년 동숭아트홀에서 공연된 오테석 작·연출 <천년의 수인> 주역(왼쪽)  
 ▼ 극단 산울림 연극 임영웅 연출 <마누라 죽이기>에서 김금지와 함께

그러나 “전무송의 스탠리는 신구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일간지의 혹평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욕을 다듬어서 보석을 만들기 위해 삼고초려(三顧草廬)의 과정을 거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불꽃 튀는 연극 혼과 사랑의 연소에 비유되는 그의 연극정신은 이러한 자기반성에서 오는 내면적 충동에서 약진한 것이다.

그 무렵 군에서 제대한 후 1971년 8년 동안 교제해 온 다섯 살 아래 이기순(李起順)과 결혼, 갓 결혼한 아내 이기순은 아기를 낳고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의 우유와 쌀을 사기 위해 결혼할 때 해온 패물과 피아노를 내다 팔고 남대문시장에서 옷장사를 하기도 했다.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 그는 갓난아기를 연습장에 데리고 다녔다. 혹독한 가난을 면치 못해 6개월에 한 번씩 사글셋방을 찾아 창동에서 쌍문동, 문래동, 다시 인천에 내려갔다가 서울로 올라와 광명시 한 주택의 뒤꼍방에서 출발, 개봉동에서만 여섯 차례나 전전하는 고달픈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1975년 국립극단에 입단하여 <베케트> <천사



여 고향을 돌아보라> <물보라>를 공연, 1977년 3월부터 오테석 작 연출의 <태>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번안 연출한 안민수의 <하멜태자>를 가지고 3개월 동안 미국 15개 도시 순회 공연에 나섰다. 그리고 드디어 뉴욕 라마극단 별관에서 공연된 한국판 햄릿인 <하멜태자> 연기로 그는 뉴욕 ‘오비상’ 주연상에 지명되었다.

하나의 공연에서 성공적인 연기자를 발견하면 『뉴욕 타임스』의 공연평론가 잭 앤더슨은 “어둡고 탁한 브로드웨이 하늘에 오늘 밤 별이 떴다”고 말하고 브룩스 애트킨즈는 “폭죽을 터뜨린 듯 눈부시다”는 표현을 즐겨 쓴다. 그는 <하멜태자> 미국 공연에서 기립박수와 찬란한 호평에 둘러싸였다.

1982년부터 극단 산울림에 소속되어 임영웅 연출의 <쥬라기 사람들>로 대한민국연극제 무대에 올랐을 때 연출가 정진수는 “신연극 70년을 통틀어 걸출한 수작(秀作)”임을 못박고 “주인공 만석은 인간의 피리부동과 배반, 진실의 모순에서 정의가 얼마나 외로운가를 피가 뚝뚝 흐르는 절규로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그는 대한민국연

- ▲ 1981년 영화 <만다라> 스태프진과 연기자들. 감독 임권택, 촬영 정일성, 조감독 박지균. 뒷줄 가운데 승복처럼이 안성기, 전무송
- ▼ 1993년 백일성 감독의 <한중의 시간 속에서>에서 교수 역. 이 작품은 이탈리아 살레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 수상

극제 남자주연상을 수상, 전무송은 드라마센터가 배출한 수많은 연기자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로 부상되었다. 결코 튀지 않는 대사법과 절제된 몸동작,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다면 누구나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임영웅 연출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블라디미르로 '고도'의 본고장인 아비뇽 연극제 참가, <맨발로 공원을> <쇠뿔이놀이> <수치> <대리인> <돈주양> <장비록> <손탁호텔> <루브(Luv)> <시즈위벤지는 죽었다> <파우스트> 등 100여 편에서 연기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배우의 몸 자체가 무대 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유덕형, 오태석, 안민수 등의 획기적인 연극론에 걸맞게 온몸으로 연극을 하게 되었다.

공연은 잘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스가 고헤이 작·연출 <뜨거운 바다>의 경우는 1984년 일본 신주쿠 기노쿠니아홀에서 공연할 때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만큼 흥행에 성공한 예가 있는가 하면 <잉여부부>는 출연자 8명에 관객 7명을 놓고 공연한 적도 있다.

### 또 다른 분신, 영화 <만다라>의 지산을 만나다

한 사람의 배우가 밤하늘의 별처럼 찬연하기까지는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순조로운 항해를 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파란과 곡절, 절망의 나락을 수없이 넘나들었으나 지난 세월을 망각한 채 성공한 오늘에 안주하기 십상이다. 극단 성좌에서 여전히 세일즈맨 윌리 역을 해냈고 1983년부터 90년까지 7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포항, 전주, 춘천, 경북대, 경성대 등에서의 장기공연에서 그는 인생의 비바람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피로하고 허약한 윌리 로먼이 영락없이 자신의 모습처럼 착각되었다. 그런 그에게 윌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

온 것이다.

영화 <만다라> 출연이었다. 인간적 욕망과 갈등과 싸우는 젊은 지산의 영혼은 방황하는 또 다른 자신의 분신이었다. 짐짓 불경스러운 몸짓과 맹추임을 자초하는 그 찌릿하고도 냉소적인 체취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연기의 환희였다. 그는 무대 작업에서 그랬듯이 스님에 관한 연구에 몰입했다. 사찰과 수도원을 찾아 스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스님들은 왜 팔자걸음을 걷는지, 일부 스님들은 어떻게 축지법을 쓸 수 있는지, 스님들의 여가 시간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기 위해 산속 으스스한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스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았다. 이



- ▲ 1991년 호암아트홀에서 가진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오른쪽 전무송)와 클레센(왼쪽 이미연)
- ▼ 1990년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남한산성>에서 인조 역. 오른쪽 뒤에 있는 사람이 원로 김동원

런 과정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연기를 행동보다 생각으로 하게 되었으며 하나의 인물을 형성하기 위해 바친 전무송의 헌신적 노력은 1981년 한국에서 가장 선망받는 제20회 대중상에서 신인상과 남우조연상을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그해 영화평론가협회는 <만다라>로 그에게 남자연기상을 주었다.

그는 <쥬라기의 사람들>의 '만석' 처럼 좁고 길고 어두운 갱도를 나와 눈부신 햇살 속에 서게 되었다. 연극에서 영화로 연기무대를 확대하자 그가 설 무대는 광활하고 그의 역할은 얼마든지 다양했다. 전무송은 영화 연지에서 얼마만큼 섬세한 연기를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속으로 놀랐다. 커다란 극장 공간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전에는 영화 연기가 무대보다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영화 연기는 무대 연기보다 더 많은 자발성과 즉흥성을 필요로 했다. 이후 그는 김기영 감독의 <화녀>, 배창호 감독의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독립영화 제작자 백일성이 기획·제작하고 연출한 영화 <한줌의 시간 속에서>에서 노교수 역할을 맡아 이탈리아 살레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그는 비록 연기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3년 동안 한 영화작가와 동고동락하며 만든 작품이라서 특히 애정을 갖고 있다.

무대에서의 전무송의 매력은 역시 몸 전체로 하는 연기이며 전무송은 지금까지의 대사 위주의 연극에서 보다 연기를 확대하여 동작이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연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실적과 연극적 공적에 비례하여 상복도 따랐다. 1979년 연극평론가상 연기상 이후 1980년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연극영화예술상에서 연기상, 1987년 한국백상예술대상 연기상, 1989년에 한국연극예술상 최우수 연극인상을 받았다. 현재 공주영상대학에 출강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화는 물론 텔레비전 드라마와 연극무대를 자유롭게 누빈다.



###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연기자의 모습을 지키다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 연습장에 안고 다니던 딸아이 현아는 동국대 연극과 졸업 후 1999년 <하회의 한(恨)>이란 장편희곡으로 동서희곡문학 신인작가상을 받고 직접 쓴 <종이꽃>으로 연출가로 데뷔, 아들 진우도 서울에 대 연극학과 출신이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1987년 은평구 현대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20여 차례나 이사를 다닌 끝에 5년 전부터 일산 고양시 행신동에 정착했다. 그의 부인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등 그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준 사람"이다.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윌리 로먼도,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도 더 이상은 아니다.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별빛, 밤하늘의 폭죽 같은 순간적인 아름다움도 아닐 것이다.

미국 MIT출판사가 출판한 『The Drama Review』(Winter 1985)에 보면 집필자인 연출가 김우옥은 "그의

연기는 체험에서 얻은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기술 습득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성취에서 나온 결과라고 믿고 싶다. 자신에 대한 엄격한 고집이 지금 그가 즐기고 있는 스타의 위치에 서게 했다”고 쓰고 있다.

1992년 극발연(극발전연구회)을 발족하고 이강백 작, 김광림 연출의 <북어대가리>를 공연, 이 연극은 1994년 일본 오키나와 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하여 설득력 있는 연기로 인기를 끌었고 비슷한 시기에 오태석 작 <천년의 수인>, 1998년 <대한민국 안중근>, 지난 5월 대학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열린 극작가 윤대성 페스티벌 세번째 작품인 <당신 안녕>(김영수 연출)에 출연, 이 연극에서 딸 현아와 사위 김진만과 같은 무대에 섰고 일가족의 일치된 호흡으로 연극계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진만은 TV 어린이극에 출연했던 아역 텔런트 출신으로 차세대 연출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배우와 연출 사이, 배우와 배우 사이에는 직업적인 관계가 아닌, 인간적 관계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 극단 성좌의 권오일, 연출가 오태석과 육친 같은 애정을 소중히 여기고 스타일리 역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유덕형, 영화 <만다라>에서 만난 감독 임권택, 촬영감독 정일성, TV 드라마로 알게 된 소설가 박영한과 친하고, 동기생 이호재와는 한국 연극계의 쌍벽으로 연극이 수레라면 수레를 서로 끌고 밀어주는 사이이다. 불교 입문 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법륜 스님, 그에게 ‘다정(茶亭)’이란 법명을 내려준 정릉 경국사 지관 스님과도 교분이 두텁다.

그는 법문을 듣는 시간을 좋아한다. 출세·명예·부가 최상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한낱 허욕에 불과하며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살려고 노력한다. 늘 만나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들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면 나의 삶도 은연중 그들을 닮아 속되지 않게 살게 되리라고 믿는다. 절을 올릴 때도 “티끌 같은 이



몸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인생은 뜬구름. 셰익스피어에게 물어보라. 스타란 많은 사람이 동경하지만 처신을 잘못하면 한순간에 추해진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40년간의 연기자의 길은 박토에 핀 꽃의 향기와도 같은 것이다. 그의 연기자 인생은 한국의 현대연극사에서 제1세대와 제3세대를 잇는 중간 역할로서 예술세계에서는 작은 어리석음도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위치다.

소탈한 외모와 넉넉한 웃음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배우 전무송은 어느 작품 어느 배역을 맡아도 항상 진지한 자세로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연기자의 모습을 지킨다. 🌈

#### 이세기 약력

- 이화여대 및 대학원 졸업
-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현대문학』 소설 추천
- 『서울신문』에 '이세기의 인물탐구' (1992~1999) 연재
- 『대한매일』 논설위원, 본지 편집자문위원 · 한국간행물위원회 심의위원
- 창작집 『바람과 놀며』, 『그 다음은 침묵』, 김옥길 평전 『자유와 날개』 외
- 현대문학상 · 서울언론인클럽 신문칼럼상